

야생동물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분류

척추동물은

등뼈가 있으며 알이나 새끼를 낳아기르고 폐나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무척추동물은

어미와 새끼의 모습이 다른경우가 많고 등뼈나 뼈가 없으며 각 종류마다 호흡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번식또한 다양하며 암수구분이 잘 되지 않는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척추동물에 속하는 동물

- ① 어류 : 붕어, 뱀장어, 잉어, 송어, 상어 등
- ② 양서류 :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맹꽁이 등
- ③ 파충류 : 뱀, 거북, 악어, 도마뱀 등
- ④ 조류 : 참새, 닭, 비둘기, 꿩, 독수리 등
- ⑤ 포유류 : 사람, 소, 말, 개, 토끼, 사자, 돌고래 등

무척추동물에 속하는 동물

- ① 환형동물 : 지렁이, 거머리, 갯지렁이 등
- ② 편형동물 : 플라나리아, 촌충, 디스토마 등
- ③ 연체동물 : 조개, 소라, 오징어, 달팽이, 문어 등
- ④ 절지동물 : 메뚜기, 거미, 가재, 게, 지네 등
- ⑤ 극피동물 : 불가사리, 성게 등
- ⑥ 강장동물 : 해파리, 말미잘 등

무척추동물의 특징

절지동물: 사슴벌레, 가재 처럼 마디가있고 딱딱하게 되있는 동물. 마디가 있는 다리

환형동물: 지렁이처럼 원통형으로 여러개의 마디가 있는 동물. 고리모양

극피동물: 불가사리처럼 딱딱한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편형동물: 플라나리아처럼 몸이 연하고 납작한 동물들을 뜻합니다.

연체동물 : 소라, 달팽이처럼 미끌미끌한 동물을 뜻합니다. 부드러운 몸

강장동물 : 해파리처럼 입과 항문이 구분되지 않는 동물들을 뜻합니다.

절지동물의 특징은

키틴(당화합물의 일종)과 단백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골격은 아래의 표피(다른 동물의 피부에 해당됨)로부터 분비된다.

몸은 일반적으로 마디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마디에는 관절이 있는 부속지들이 쌍으로 있어서

이로부터 절지(관절이 있는 다리)동물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87만 9,000종 이상의 절지동물이 기재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약 86%가 곤충류이다.

그러나 이 수는 전체 종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물학자들은 곤충류만 하더라도 전체 종수가 1,000만 종

선형동물

선충이라고도 한다. 가시 모양의 위체강을 가진 동물군으로, 세계적으로 약 1만 종이 알려져 있다.

자유생활을 하는 것과 기생생활을 하는 것이 있는데,
기생생활을 하는 종류가 많아 사실상 거의 모든 무리의 동물과 식물에 기생하며 기생 방식도 다양하다.

바다·민물·토양에서 살고, 극지방에서부터 열대지방에 이르기까지 사막이나 온천, 높은 산, 깊은 바다 밑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환경에서 발견된다.

어떤 경우에는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데, 네덜란드 연해의 해저 1m² 진흙 속에 442만 개체의 선형동물이 들어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

동물 분류상의 1문으로, 원형동물이라고도 부릅니다.

회충이나 요충, 또는 필라리아 등 동물에 기생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식물에 기생하는 종도 많으며 또 토양 속, 바닷물이나 민물 등에서 자유생활하는 종은 더욱 많습니다.

식물에 기생하는 것은 농작물의 해충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토양 속에 서식하는 것은 스푼 하나의 흙에 수백 마리나 될 정도로 개체수가 많습니다.

동물에 기생하는 종은 비교적 대형이지만,

식물에 기생하는 것이나 토양 속에 서식하는 것은 1mm도 안되는 미소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몸은 길다란 원통 모양이고, 체절은 없으며, 체표는 큐티쿨라 층으로 덮이고 섬모는 없습니다.

피하에 발달한 근육으로 운동하는데,

몸에 세로로 붙은 종주근이 없으므로, 몸을 가늘게 했다 굵게 했다 할 수는 없고,

좌우로 툭툭 튀는 것과 같은 독특한 움직임을 합니다.

모두 자웅이체로 유성생식하는데, 단위생식을 하는 종도 있다고도 합니다.

포유류

1) 포유동물의 특징

28목 146과 1,192속 4800여종

우리나라에는 8목 27과 102종 (육상 포유동물 6목 19과 83종, 수상 포유동물 2목 8과 19종) 으로

피부에 털이 나고 피가 따뜻하고 새끼를 낳으며 젖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다.

생태계 먹이사슬

: 태양에너지를 고정하여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합성하는 녹색식물을 생산자, 자기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동물을 소비자라고 한다. 소비자 중에서 생산자를 먹는 것을 초식동물 또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것을 육식동물 또는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것을 3차 소비자라고 한다. 이 동식물의 죽은 몸체는 세균 즉, 분해자에 의해 분해되고, 그 결과 생긴 무기염류는 최종적으로 다시 식물로 흡수된다